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내용 분석

박선정¹, 박병준^{1*}
¹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Content Analysis of Nurse Imag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Sun-Jung, Park¹, Byung-Jun, Park^{1*}

¹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Yeongdo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간호 대학생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과 후에 간호사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는지 조사하여 간호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간호사에 대한 정의, 필요성, 훌륭한 간호사란, 간호사의 편견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여 내용분석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48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과 14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문적인 간호사로서의 자질과 환자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이 필요하며, 간호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재조정하여 이미지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nurse imag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specifically meant to determine what images grade 2 and 3 nursing students had abou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clinical practice to define the nurse's image. The selected nursing students were interviewed to obtain their opinions on the definition and necessity of a nurse and what a great nurse should be like as well as their prejudice about nurses, and conten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categorize their statements. As a result, 48 significant statements and 14 categories were selected. The findings of the study might not be generalizable becaus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from two different nursing departments located in Gangwon Province and Gyeonggi Province. More concrete and reliable results are expected if more students from more geographic regions are investigated.

Key Words : Content Analysis, Nurse Image,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시대에서 간호의 개념은 지속적인 학문적인 발전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내적, 외적 성장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건강관리 전문인으로서 여러 건강관련분야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1]. 간호사는 전문직 영역

으로 환자에게 깊은 애정과 존중, 사랑을 갖고 독자적인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회복을 돕고 대상자의 간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산업장 및 학교에서 건강 상담을 통하여 건강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환자치유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환자들의 옹호자, 교육자,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전문가, 연구가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 간호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Corresponding Author : Byung-Jun, Park(Gangneung Yeongdong College)

Tel: +82-33-610-0452 email: byungjuny00@gmail.com

Received February 5, 2014

Revised March 3, 2014

Accepted June 12, 2014

질적인 의료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고 전문화의 필요성을 요구하지만 아직 까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나이팅게일과 백의 천사와 같은 전통적인 인식과 소극적인 업무인 의사 보조의 역할과 같은 정형화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다[3].

간호 대학생이 가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학과 선택 시 이미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 대학생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사의 이미지나 지인을 통한 간호사와의 접촉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4]. 간호 대학생의 인식은 초기에는 간호 이미지에 대해 대중들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며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윤리적 표준 등을 내면화하고 이를 본인의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5].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습을 거치는 동안 간호행위 시 이론과 실제의 차이, 간호사들의 비교육적 태도 등으로 이상적인 간호직과 실제의 간호직간에 차이를 인식하고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망스러움과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간호사의 자긍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호 업무수행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진다[6]. 더불어 간호학을 선택하여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 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는 향후 간호직 업무 수행이나 직업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7].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재조정되어 간호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지향하는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 자신은 물론 타 보건 의료 전문인과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간호이미지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한 형성된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8]. 간호사의 이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정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속적 변화의 특성을 보이며 의사결정과 행동결정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간호사가 긍정적인 간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교육과 학습이 요구되며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간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다[9].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보면, 일반인과 의료인 및 환자대상 연구[10,11],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이미지와 초, 중, 고, 대학생 대상의 연구, 간호 대학생 대상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12-15]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전·후 간호사 이미지의 인식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실무현장에서 역할을 함에 있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중요하며, 이미지는 사회인이 되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쉽게 바꿀 수 없는 정신적 개념이므로 대학생활 중에 긍정적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2학년과 3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과 후에 간호사를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는지 조사하여 간호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구축을 정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면담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에 대하여 간호 대학생 2학년과 3학년 학생의 인식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구체적 목적으로는 간호대학 교과과정 중의 실습 전·후 인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정의, 필요성, 훌륭한 간호사, 편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에서 2학년과 3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2학년, 3학년 학생 전체 125명의 대상자 중에서 누락된 자료는 제외하고 총 120명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뢰도 95%, 오차한계 $\pm 2.32\%$ 로 할 때 필요한 표본의 수에 해당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16].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8월 30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선정된 대학의 학과장의 허락을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은 대상자 1인당 1회로 이루어졌고, 대상자가 편안한 장소, 타인의 방해받지 않는 면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은 면담자가 적게 하였는데 서술 내용의 양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였다. 질문지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이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문헌을 참고로 하여 4개의 개방식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는 “간호사란?”, “간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훌륭한 간호사란 어떤 간호사입니까?”, “간호사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이었다.

본 도구의 타당도는 3회에 걸쳐 간호학 교수 2인과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수간호사 2인을 통해 검증받았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3학년 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게 되었다.

Krippendorf가 설명한 내용분석 방법은 내용을 분석하는 자체가 목적인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면담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기술하고 범주화하며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17].

본 연구의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간호사 이미지 인식에 관한 내용에서 주로 분류하는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별 내용을 하위범주와 구체적 내용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범주의 분석 방법으로 연구자 2인은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자 간에 검토한 내용을 통해 의논하여 범주를 추출하였다.

대상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여러 중복응답을 제시하

였으며, 대상자들이 기록한 내용은 같은 의미와 비슷한 표현을 같은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각 범주는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상자의 원 자료를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내용분석방법의 수량적 분석기법으로 제시되는 빈도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면담 내의 진술문을 반복하여 읽는 과정에서 설정된 영역과 관련된 의미 있는 구문과 문장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65개의 문장의 구분은 유사한 내용을 모아 범주화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 2인을 포함한 간호학과 교수 3인이 함께 범주에 관한 생각을 토의하였고, 비슷한 범주에 속하는 구문과 문장끼리 서로 비교하고 새로운 범주를 창출하여 최종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최종 범주는 48개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모든 문항의 코딩에 대해서는 각 연구자들 간의 신뢰도가 90% 이상의 수준으로 일치할 때 까지 지속적인 연습을 한 후 실제의 코딩에 들어갔다. 코딩과정에서 의미 선정에 모호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는 책임연구자의 주관을 통한 토의로 의견을 좁혔는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코더들(coders)간의 신뢰도 측정이었다.

신뢰도는 내용분석방법에서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동일 주제로 집계하고 분석자들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Holsti 방법에 의해 3인의 연구자가 계산하였으며(Holsti 방법= $3M/N1+N2+N3$, M: 연구자 간의 일치한 코딩 수, $N1+N2+N3$: 연구자가 코딩한 전체 수), 4개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신뢰도를 실시하여 Table 1에 보고하였다[17].

내용분석에서 Holsti의 공식을 이용할 경우, 신뢰도 계수는 약 90%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는데[18], 문항 4번은

[Table 1] Question Reliability

Question	Coder	Coding Count	Accord Coding Count	Reliability (%)
No.1	1	11	11	91.6
	2	12		
	3	14		
No.2	1	11	11	94.3
	2	12		
	3	12		
No.3	1	15	14	91.3
	2	14		
	3	17		
No.4	1	11	11	86.8
	2	13		
	3	14		

86.8%의 신뢰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전체 평균 91.0%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내용분석에서의 타당도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기준은 학계 동료들로부터 중요성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범주화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간호학 교수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20명으로 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56명(46.7%), 3학년 64명(53.3%),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7명(22.5%), 여성이 93명(77.5%)이었다. 연령은 20-25세는 95명(79.2%), 26-30세는 25명(20.8%)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유무에 대해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49명(40.8%),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71명(59.2%)로 확인되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8명(7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확대가족이 32명(26.7%)으로 나타났다. 친지나 친구 중 간호사 유무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있는 경우가 72명(60.0%), 간호사가 없는 경우가 48명(40.0%)로 확인되었다. 입학 전 간호사에 대한 생각은 108명(90.0%)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졌고, 간호사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경로는 대중매체가 59명(49.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교에서는 22명(18.3%), 친구들을 통해서 19명(15.8%),

형제·자매를 통해서 11명(9.2%), 부모를 통해서 9명(7.5%)으로 나타났다[Table 2].

3.2 간호사에 대한 간호 대학생의 인식내용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관한 면담자료를 간호사의 정의, 간호사의 중요성, 훌륭한 간호사, 간호사에 대한 편견의 4가지 영역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총 48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과 14개의 범주로 구분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진술문은 중복응답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간호사의 정의

간호사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면담 자료는 「돌봄 제공자」, 「협력자」, 「건강 증진자」, 「봉사자」로 분류되어 4개의 범주와 11개의 진술문으로 도출되었다[Table 3].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정의는 ‘환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2학년에서 21명, 3학년에서 2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분을 간호하는 사람’이 2학년과 3학년에서 각각 9명으로 보고되었다. 뒤를 이어 ‘환자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며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진술문도 기술되었고 이를 「돌봄 제공자」로 범주화 하였으며 2학년 40명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rade	Grade 2	56(46.7%)
	Grade 3	64(53.3%)
Sex	Male	27(22.5%)
	female	93(77.5%)
Age	20-25	95(79.2%)
	26-30	25(20.8%)
Religion	Yes	49(40.8%)
	No	71(59.2%)
Family	Nuclear	88(73.3%)
	Extended	32(26.7%)
Is there a nurse among the near friend of family?	Yes	72(60.0%)
	No	48(40.0%)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 nurses?	Yes	108(90.0%)
	No	12(10.0%)
Media to gain knowledge for nurses	Mass Media	59(49.2%)
	School	22(18.3%)
	Friends	19(15.8%)
	Brother · Sister	11(9.2%)
	Parents	9(7.5%)

[Table 3] What do you think a nurse is like? (N=120)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Grade 2		Grade 3	
		Frequency	N(%)	Frequency	N(%)
Care Provider	who takes care of patients physically and mentally.	21	40(66.7)	25	44(73.3)
	who nurses patients physically and mentally.	9		9	
	who helps treat patients and assist their recovery.	5		5	
	who takes care of patient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5		3	
Collaborator	who takes care of patients by keeping human dignity in mind.	·		2	
	who cooperates with doctors and other medical personnels.	4	8(13.3)	6	6(10.0)
	who serves as an assistant of a doctor.	4		·	
Health Promoter	who tr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national health.	4	6(10.0)	2	5(8.3)
	who offers medical service for patients to promote their health.	2		3	
Service Worker	who leads a life of service and dedication for patients.	3	6(10.0)	5	5(8.3)
	who is like a white-robed angel.	3		·	

(66.7%), 3학년 44명(73.3%)로 나타났다. ‘의사 및 기타 의료진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 ‘의사의 치료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협력자」로 범주화 하였으며, 2학년 8명(13.3%), 3학년 6명(10.0%)로 보고되었다. ‘국민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건강 증진자」로 범주화하였고 2학년 6명(10.0%), 3학년 5명(8.3%)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환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백의의 천사’로 진술한 내용은 「봉사자」로 범주화 하였고 2학년 6명(10.0%), 3학년 5명(8.3%)으로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3.2.2 간호사의 필요성

간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면담자료는 「전문가」, 「협력과 보조」, 「치료와 회복」, 「건강관리자」로 분류되어 4개의 범주와 11개의 진술문으로 도출되었다[Table 4].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가 2학년 15명, 3학년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본질적인 치료만이 아닌 정서적 지지를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환자의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3학년 학생들에서 ‘환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지고 전반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진술문을 토대로 「전문가」로 범주화 하였으며 2학년에서 26명(43.3%), 3학년에서 24명(40.0%)으로 나타났다. ‘의사보다 가까이에서 대상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부족한 의료진을 채우기 위해서’, ‘의

[Table 4] Why is a nurse necessary? (N=120)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Grade 2		Grade 3	
		Frequency	N(%)	Frequency	N(%)
Professional	to take care of patient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15	26(43.3)	16	24(40.0)
	to provide both professional treatment and emotional support.	6		3	
	to provide professional care for patients in person.	5		2	
	to be entirely responsible for patients and provides overall nursing.	·		3	
Collaborator and Assistant	to communicate with patients more closely than a doctor.	6	19(31.7)	10	14(23.3)
	to make up for insufficient medical personnels.	8		3	
	to assist a doctor.	5		1	
Facilitator of Treatment and Recovery	to help treat patients.	6	9(15.0)	4	11(18.3)
	to help their recovery after treatment is provided by a doctor.	3		7	
Health Manager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and promote the health of patients.	5	6(10.0)	8	11(18.3)
	to use professional knowledge to ensure the prevention of diseases in various fields.	1		3	

[Table 5] What should a great nurse be like? (N=120)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Grade 2		Grade 3	
		Frequency	N(%)	Frequency	N(%)
Outstanding Job Performance	one who has abundant medical knowledge.	10	25(41.7)	9	38(63.3)
	one who has remarkable nursing skills.	5		11	
	one who has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3		7	
	one who is friendly enough.	3		4	
	one who tries to build up the health of patients and help them stay healthy.	2		4	
	one who is competent enough like Nightingale	2		·	
	one who understands every information about patients within the given time.	·		3	
Good	one who treats patients humanly.	5	18(30.0)	5	11(18.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e who treats patients like his or her family.	7		3	
	one who is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medical personnels and have good relations with others.	3		1	
Warm Heart	one who is considerate of others.	3		2	
	one who takes care of patients with a gentle heart and devotion.	9	17(28.3)	5	11(18.3)
	one who takes care of patients not only physically but mentally.	5		4	
	one who loves patients.	1		2	
	one whose heart is like that of a white-robed angel.	2		·	

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협력과 보조」로 범주화 하였으며, 2학년 19명(31.7%), 3학년 14명(23.3%)으로 보고되었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의 치료 후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치료와 회복」으로 범주화하였으며 2학년 9명(15.0%), 3학년 11명(18.3%)으로 보고되었다.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예방을 위해'는 「건강관리자」로 범주화 하였고 2학년은 6명(10.0%), 3학년은 11명(18.3%)으로 나타났다.

3.2.3 훌륭한 간호사

훌륭한 간호사란 어떤 간호사인가에 대한 면담자료는 「탁월한 업무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따뜻한 마

음가짐」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15개의 진술문으로 도출되었다[Table 5].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훌륭한 간호사는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간호사', '간호기술이 뛰어난 간호사', '책임감이 뛰어난 간호사', '친절한 간호사', '환자의 건강증진을 시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간호사', '나이팅게일 같은 유능한 간호사', '주어진 시간 안에 환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간호사'로 나타났으며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범주화하여 2학년은 25명(41.7%), 3학년 38명(63.3%)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간호사', '환자를 가족같이 대하는 간호사', '의료진과 협력관계 및 대인관계가 원만한 간호사', '타인에게 배려할 줄 아는 간호사'는 「원만한 대인관계」로 범주화하여 2학년 18명

[Table 6] Do you have any prejudice against nurses? (N=120)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Grade 2		Grade 3	
		Frequency	N(%)	Frequency	N(%)
Work Overload	A tough and busy job	10	20(33.3)	15	32(53.3)
	Heavy stress	5		8	
	Underpayment	3		5	
	Lack of personal time because of working in three shifts	2		4	
	Assistant	Just serve as an assistant of a doctor.	15	25(41.7)	18
Unfriendliness	Women's job	5		1	
	Lack of medical knowledge	5		2	
	Be unfriendly.	7	15(25.0)	3	7(11.7)
	Don't listen to others.	5		2	
	Be cold-hearted.	3		1	
	Don't try to understand patients and their families.	·		1	

(30.0%), 3학년 11명(18.3%)로 보고되었다.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환자를 신체적 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까지 돌보는 간호사’ ‘환자를 사랑하는 간호사’ ‘백의의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간호사’는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범주화하였고 2학년에서는 17명(28.3%), 3학년은 11명(18.3%)으로 가장 낮았다.

3.2.4 간호사에 대한 편견

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대한 면담자료는 「업무과다」, 「보조자」, 「불친절함」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11개의 진술문으로 도출되었다[Table 6].

간호 대학생이 갖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편견으로는 ‘일이 힘들고 바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업무에 비해 임금이 낮다’, ‘3교대로 인한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가 있었고 이는 「업무과다」로 범주화하였고 2학년 20명(33.3%), 3학년 32명(5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의 보조역할이다’, ‘여성들의 직업이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보조자」로 범주화하였으며 2학년이 25명(41.7%), 3학년은 21명(35.0%)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불친절하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냉정하다’, ‘환자와 보호자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불친절함」으로 범주화하였고 2학년 15명(25.0%), 3학년 7명(1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과 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간호사의 정의, 간호사의 필요성, 훌륭한 간호사란, 간호사의 편견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간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이미지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사의 정의로는 「돌봄 제공자」, 「협력자」, 「건강 증진자」, 「봉사자」로 범주화 하였고, 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면담자료는 「전문가」, 「협력과 보조」, 「치료와 회복」, 「건강관리자」로, 훌륭한 간호사란 「탁월한 업무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대한 면담자료는 「업무과다」, 「보조자」, 「불친절함」으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하였던 3학년과 실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2학년 학생에서 각각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내용으로 대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에서 학생들이 간호사들의 업무를 직접 확인해 보아도 간호학과에서 학습하며 인식한 간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현숙과 김현옥의 연구에서는 실습 전보다 실습 후 간호학생이 간호사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미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19],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에 대해 실습 전·후 학생 대부분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어 연구 결과상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유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사의 정의는 돌봄 제공자, 협력자, 건강 증진자, 봉사자로 확인되어 긍정적인 간호 이미지가 인식되어진다고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간호사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 교육자, 상담가, 보건 정책 결정자로서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가 돌봄 제공자의 범주화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간호사라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간호사의 역할보다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가치와 역할을 인정 받기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으며 과거에 비해 전문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 2학년과 3학년 간호학생은 모두 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치료만이 아닌 정서적 지지를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가 가장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의미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이순희 외의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과 비 간호 대학생 모두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한다’가 가장 낮게 확인되어[20], 2004년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현재 간호의 역할과 영역이 다양해지고 간호사의 교육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간호 전문직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간호사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임상에서도 간호사의 역할을 더욱 더 정립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훌륭한 간호사의 인식에 대해서 간호 학생들은 긍정

적인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다. 진술문의 내용으로 ‘나이 텅게일 같은 유능한 간호사’, ‘환자를 사랑하는 간호사’, ‘백의의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간호사’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 간호계에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과거의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백의의 천사, 희생과 천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임미림의 연구결과와 문영주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21][22].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면 현재 간호사들은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라는 직업이 가치있고 보람된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자신감 있는 간호사 이미지를 대중들과 간호계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간호 대학생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자기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간호 대학생과 대중들이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결과가 확인되어 간호 대학생과 간호사들은 본인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 대학생들이 인식한 간호사의 편견에 대해서는 ‘불친절하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냉정하다’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임미림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하게 간호사들은 ‘불친절하다’, ‘권위적 의식이 있다’로 간호사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21],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대중매체를 통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교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중들에게 호감도 있는 이미지로 개방하고 실무 현장에서도 간호 대상자들을 접촉 시에 더욱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겠다.

또 다른 편견에 대한 면담내용에서는 상호 협조하여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의사와의 관계와 불친절한 간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송인자의 연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해 이미지를 연구한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23], 일반인들도 대부분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반면, 간호사와 상호 협조하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 관련부서 특히 의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관계에서는 간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사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간호사들이 임상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범주로 확인되어진 보조자에 대한 내용은 허금희와 이병숙의 연구에서도 TV를 포함한 영상매체에서 ‘의사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TV를 포함한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정도의 기술적인 업무와 사건중심의 업무 외적인 장면들이 주로 비취지고 있고, TV 드라마에서는 간호사의 교육적 활동이나 확대된 역할은 거의 묘사되고 있지 않아 대중이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해 보조자로 인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실습 전·후 간호 대학생 모두 보조자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졌다. 이는 전문직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고, 간호사의 정확한 묘사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25]. 박선일과 서은희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통하여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의개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26] 간호사신문을 간호사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도서관에도 배포하여 간호사와 간호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것도 간호사이미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TV와 대중매체에서 재조정되어 비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올바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홍보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 2학년과 3학년에 대하여 각각 간호사의 정의, 필요성, 훌륭한 간호사, 간호사의 편견으로 나누어 내용 분석한 결과, 실습 전·후의 학생들이 인식한 범주의 내용은 비슷하며 빈도의 차이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식하는 내용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확대되어진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인으로서 역할에 대해 재정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2학년과 3학년 간호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인 돌봄 제공자, 봉사자, 따뜻한 마음가짐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현재에 변함없이 지속되었고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와 전문직으로 발전에도 의사

의 보조 역할, 불친절한 간호사라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병원 환경에서 타 직원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모습이 독립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사가 되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진 후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대학생활 중에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 교육자들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간호사를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홍보와 초·중·고등학생 대상 방학 중 간호사 체험교실 운영 등의 사업은 간호사이미지 개선을 위한 좋은 전략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사업들이 전국단위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27].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에 대한 정의, 필요성, 훌륭한 간호사란, 간호사의 편견에 대하여 간호사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간호학부에 재학 중인 2학년과 3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내용분석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는 실습 전과 후의 이미지 내용에는 같은 것으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함께 형성되기 때문에 간호사의 이미지 관리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간호사로서의 자질과 환자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병원 생활에서 타 직원과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고 TV와 대중매체를 통하여 간호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재조정하여 이미지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간호학과 2학년과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지역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겠다.

둘째, 간호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간호사 인식에 대한 이미지 증진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한 뒤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셋째, 간호학과 학생과 일반인 인식하는 간호사의 인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1] S. A. Park, Y. L. Aum, M. S. Jung, S. Y. Jung & K. S. Choi, "Image of Nursing: Q methodological approach", *J Korean Acad Nurs*, Vol. 6, No. 1, pp. 13-23, September, 1992.
- [2] C. R. Curan,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media in J.C.M Closky & H.K Grace*, Current Issues in Nursing, Blackwell scientific Pub, 1985.
- [3] M. Takase, E. Kershaw & L. Burt, "Does public image of nurses matter?", *J Prof Nurs*, Vol. 18, No. 4, pp. 196-205, 2002.
DOI: <http://dx.doi.org/10.1053/jpnu.2002.127014>
- [4] M. H. Park & J. J. Yang, "A study on the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8, No. 1, pp. 107-121, 2002.
- [5] K. K. Chitty, "*Professional nursing: Concepts and challengers(3r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2001.
- [6] J. A. L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0, No. 3, pp. 325-334, 2004.
- [7] H. Cho & K.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Public Health Nurs*, Vol. 20, No. 2, pp. 163-173, 2006.
- [8] J. A. Kim & S. H. Lee, "Analysis of Studies on Image of the Nurses Performed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9, No. 2, pp. 199-211, 2003.
- [9] M. S. Kim, S. H. Lee & S. Y. Kim, "The Meaning of Nursing in the freshmen of Nursing School",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3, No. 2, pp. 6-15, 2002.

- [10] S. H. Jang, "Survey on nurse's im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1998.
- [11] I. S. Yang,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 Korean Acad Nurs*, Vol. 4, No. 2, pp. 289-306, 1998.
- [12] S. Y. Kim,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es and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2004.
- [13] H. Y. Kang, M. H. Ko, J. J. Yang & S. M. Kim,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Vol. 33, No. 6, pp. 792-801, 2003.
- [14] K. A. Park & M. R. Song,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imag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Vol. 31, No. 4, pp. 584-597, 2001.
- [15] Y. S. Yang, "A study on the self-esteem and nurse image of th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2003.
- [16] W. G. Cochran, "*Sampling techniques (3rd ed.)*", NewYork: John Wiley & Sons, 1977.
- [17] K. Krippendorff,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Beverly Hills: Sage, 2004.
- [18] D. K. Kim & J. C. Yu, "*Mass media research*", Seoul: Nanam, 2005.
- [19] H. Kang & W. Kim, "Changes in the image of the nurses for students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d Fundam Nurs*, Vol. 9, No. 3, pp. 379-387, 2002.
- [20] S. H. Lee, S. Y. Kim &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0, No. 2, pp. 219-231, 2004.
- [21] M. L. Im, "Research on Contests Analysis on Image of Nursing on Television Drama", *Nursing Science*, Vol. 7, pp. 64-83, 1995.
- [22] Y. J. Moon,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nursing, male nurses, and nursing as possible career consid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0.
- [23] I. J. S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i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J Korean Acad Nurs*, Vol. 32, No. 2, pp. 51-61, 1993.
- [24] K. H. Huh & B. S. Lee,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aegu",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 Management*, Vol. 9, No. 2, pp. 157-173, 1999.
- [25] H. S. Kim, "*An introduction to nursing: the theory of professional*", Seoul: Hyunmoonsa, 2003.
- [26] S. I. Park & E. H. Seo, "Effects of nurse newspaper in education (NIE) on self 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179-187,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179>
- [27] J. M. Kim, "2013 Seoul Nurses Association Assembly",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13(March 19).

박 선 정(Sun-Jung, Park)**[정회원]**

- 2011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아동간호학 전공)
- 2012년 3월 ~ 현재 :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초빙조교수

<관심분야>

아동 건강증진, 부모 양육행위

박 병 준(Byung-Jun, Park)**[정회원]**

- 2012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성인간호학 전공)
- 2013년 3월 ~ 현재 :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초빙조교수

<관심분야>

순환기계 환자 간호, 중환자 간호